

목양 칼럼

시편 131편 묵상

“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떼 아이와 같도다.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어다”(시 131:1-3).

오래전에 업스테이트 뉴팔츠(New Paltz)에 있는 모호크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. 동부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. 특히 1,200피트 우거진 숲 속에 있는 산상호수에서 볼 수 있는 숲과 맑은 호수의 대칭을 이루는 리플렉션은,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. 잠시나마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짐을 느꼈습니다.

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.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우리 직장도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? 등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. 그러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을 보면 볼수록 스스로에게 덜 집착하게 됩니다.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. 다윗은 자신을 젖 떼 아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젖 떼 아이와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아이는 울음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반면에, 젖을 떼 아이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엄마 품에 있는 것입니다.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? 아마 엄마가 적절한 시간에 자기에게 젖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다른 차이는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젖만 먹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젖을 떼 아이는 엄마 젖 외에도 훨씬 다양한 이유식을 먹게 됩니다.

끊임없이 산불과 홍수와 가뭄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. 코로나 전염병도 없어진 것 같다가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.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다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.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나 엘리야 시대의 가뭄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버틸 때가 아닙니다. 이제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.

주님!
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.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.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. 젖 떼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.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.

정기모임 안내

집회	시간	장소		
주일예배	1부 예배	오전 8:00		
	2부 예배	오전 9:30		
	3부 예배	오전 11:00		
	영어 예배	오후 1:00		
수요예배	오후 8:30	본당		
새벽기도회	오전 5:30 (월요일-토요일)	본당		
목장모임	오후 8:30 (매월 셋째 금요일)	각 목장별로		
제자훈련	각 동반자별로	각 동반자별로		
주일학교	영아유치부 (5세 이하)	오전 11:00	유치부 예배실	
	유년부 (1-6학년)	오전 11:00	유년부 예배실	
	중고등부	주일예배	오전 11:00	중고등부 예배실
		금요모임	오후 07:30 (금요일)	
Silver Club	목요일 오전 10:00- 오후 2:00	친교실		
Mommy & Me	금요일 오전 10:00-11:30	유치부 예배실		
뉴욕예일한국학교	토요일 오전 10:00-12:00	교육관		



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

뉴욕예일장로교회

포어: 예수님 제일
(마 16:16)



- 영감있는 예배
- 십자가 사랑의 교제
- 땅끝까지 복음전파
- 천국일꾼 훈련양성
- 이민가정의 치료
- 능력있는 기도 생활

담임목사 김중훈
Senior Pastor: Rev.
Jong Hoon Kim, D.Min

17 New South Rd.,
Hicksville, NY 11801

Tel. (516)938-0383
Fax. (516)938-3824
<https://YaleChurch.org>

주일예배		제 32권 31호 주후 2023년 7월 30일	
예배 시간	1부 오전 8:00	2부 오전 9:30	3부 오전 11:00
인도자	홍정자목사	우영주목사	백에스라목사
예배의부름	인도자 (요 4:24)		
예배 기원	인도자		
신앙고백	다같이 (사도신경)		
찬송	93장		
기도	김민수집사	정수영장로	김동환장로
성경봉독	롬(Ro) 10:5-13		
찬양	예일관악단	글로리아	할렐루야
말씀	나의 삶의 이유 김중훈목사		
찬송	455장		
봉헌	630장		
예일 소식	인도자		
찬송*	635장		
합심기도*	다같이 (감사/결단/축복)		
파송의 말씀	인도자 (세상의 소금과 빛으로)		
축도*	김중훈목사		

*표는 일어서 주십시오

수요예배 8월 2일 오후 8:30

- 기도: 구본원권사
- 말씀: 우영주목사
- 다음주 기도: 이미경권사

새벽기도회 오전 5:30

- 말씀: 김중훈목사

다음 주일 기도

- 1부: 이배준집사
- 2부: 김용호장로
- 3부: 지재홍장로

7월 안내위원

- 1부: 예배부
- 2부: 하덕순권사
- 3부: 홍재익집사, 정경자권사

예배 및 헌금 안내

-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
 -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*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
 - Address: 17 New South Rd. Hicksville, NY11801).
 - Pay to order: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.
 - Venmo: venmo@YaleKM, CCM Venmo는 @YaleCCM입니다.
 - 선교회월례회: 7/30(오늘), 3부예배 후, 각 선교회별로
 - 담임목사 동정: 휴가 (7/31-8/4)
 - 동사목사 부임: 오세준목사 (8/1)
 - 7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: 각 목장별로, 8/2(수)까지
 - 맨하탄 전도사역: 8/5(토), 하크네시아교회 (9:40),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 (문의: 박성하목사, 김영애권사)
 - 중고등부 교사모집: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실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(문의: 유명근목사)
 -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
 - *시간 및 장소: 9/10 (주) 오후 5시, Madison Theatre, Molloy University
 - 1000 Hemshead Ave, Rockville Centre, NY 11570
 -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
 - 강단 꽃: 하덕순권사
 - 사랑의 식탁: 하덕순권사 김태복사모(생일)
 -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
 - 식사기도: 이번주: 최영진장로 다음주: 오현섭장로
 - 식당봉사: 이번주: 4마을 다음주: 5마을
 - 동시통역: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
- 11am Service Only. Zoom QR Code:



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(롬 8:31-39)

[단기선교 선교지 현황과 선교전략]

1. 선교지 현황: 볼리비아 라파즈의 네 교회 방문 선교(해발 3,500M - 해발 4,500M) 산소부족, 고산증 현상(호흡곤란, 두통, 구토증), 매연, 먼지, 거친 도로 상황
2. 선교전략
 - 1) 구원사역(기도, 찬양, 팬토마임, 설교, 중보기도)
 - 2) 치유사역(안경, 내과진료 및 약국, 미용, VBS)
 - 3) 선물사역
 - 4) 아침 큐티, 저녁 저널이 선교의 원동력

[성경 탐구]

핵심 구절: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(롬 8:31).
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(롬 8:37).

1. 염려의 문제(8:32)

“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.”

 - 1) 직장의 염려 (선교 전에 목표액 90% 달성) / 2) 딸 걱정 (치유와 회복) / 3) 호흡 걱정 (찬양할 때)
2. 죄책감의 문제(8:33-34)

“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...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.”

 - 1) 중보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현지인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 자격이 있느냐라는 죄책감의 문제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기도해 줄 수 있었다.
 - 2)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선교 때는 부끄러움이 없이 중보기도해 드려야 하겠다 결심.
3. 환경의 문제(8:35-36)

“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... 도살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.”

환경의 어려움은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이냐고 물어야 한다. 왜냐하면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다(8:29).

 - 1) 환경의 부족함은 감사를 배우는 기회이다.
 - 2) 선교팀원의 연약함은 서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기회이다.
 - 3)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이다. (능력, 가슴, 열매)

[결론과 적용 질문]

좋은 교회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와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.
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한 나의 감사와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?

교우동정

- 한국방문 김태근B집사&이은경집사

행사예고

- 08/6(주) 정기 당회
- 08/20(주)-22(화) 유년부 수련회 (Tuscarora Inn & Conference Center, Mt Bethel, PA)
- 08/20(주)-24(목) 중고등부 수련회 (Tuscarora Inn & Conference Center, Mt Bethel, PA)
- 09/10(주)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

방송설교

- KRB FM 87.7 (라디오): 매주 화요일 오전 6:30-7:00
- Cablevision Ch. 1156 (텔레비전): 주일 오후 9:00-9:30 (재방송, 월요일 오전 6:30-7:00) CTS
- Direct TV Ch. 2092 (텔레비전): 주일 오후 8:30-9:00 (재방송, 월요일 오전 9:30-10:00) CTS